

지역 소식통

고창군, 신호부부 주택 대출 이자 지원... 2차분 접수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신호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신호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오는 6월1일부터 2차분 접수가 시작된다. 2억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3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호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되어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이하 여야 된다. 2차분 신청은 오는 6월1일부터이며, 신호부부 중 1인이 관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자격 검토 후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구강보건의 날 홍보채널 운영

부안군은 제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다시찾는 건강미소 함께하는 구강관리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체험행사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구강보건의 날은 첫 영구치가 나오는 6세의 6차와 구치(어금니)의 9차를 단 6월 9일로 지정했으며 6세에 나오는 구치를 보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강검진의 중요성과 올바른 구강위생관리용품 사용법 안내, 건강한 구강생활 실천 유도, 구강보건증진 등 부안치과의사회와 협력, 구강보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발하고자 한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직장인의 구강건강관리를 시작으로 6월 12일 물의거리 광장에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아동들과 부안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검진 및 나의 입속 세균 검사, 구강건강증 검사, 불소도포 등 체험행사와 올바른 잇솔질과 칫솔 선택, 구강건강 상식 퀴즈 이벤트, 구강위생용품 전시 등 홍보관을 운영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2주년

부안군, 누적 방문객 수 15만명 · 누적매출액 50억원 달성

부안군은 로컬푸드직매장(임시) 개장 2주년을 맞아 6월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행사에서는 농산물(과채류), 축산물(정육) 등 최대 30% 할인, 우수고객 사은행사 등 2주년을 기념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하여 직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감사함을 보답할 계획이다. 군은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군민, 자족도시 부안'을 비전으로 민선 7기부터 추진중인 부안형 푸드플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안로컬푸드 직매장(임시)을 지난 2021년 6월 개장했으며, 이커머스 시장진출 변신하러 마트 입점(22. 8.), 고속도로 행복장터 개설(22년 11월)등으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로컬푸드직매장은 일평균 방문객수가 170여명이었으나 현재 일평균 350명으로 늘었으며, 5월 말 기준 누적방문객수 15만명 돌파, 로컬푸드 관계시장 누적 매출액은 50억을 달성하여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역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 구조가 정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성과는 생산능가 현장지도 및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출하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정기적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한 안전성 관리, 합리적인 가격의 제철 농산물 판매와 수시로 진행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로 피드백을 통한 개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체



와 협력하여 흠뻑어르신 사랑의 밑반찬,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백산면 녹두꽃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식재료를 공급하여 군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 및 관계시장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장경준 농업정책과장은 "출하능가 및 군민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2주년까지 올 수 있었다"며, 로컬푸드에 대한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129주년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 개최된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가 지난 28일 까지 펼쳐진 룬볼과 태권도대회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함께하는 희망찬 정읍시 만들 것"

제129주년 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 성료

제129주년 정읍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해 개최된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가 지난 28일까지 펼쳐진 룬볼과 태권도대회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1일부터 정읍시장장애인체육회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보차아, 좌식배구, 룬볼, 태권도 등 4종목의 전국 각지 700여 명의 장애인 선수단과 가족들이 정읍을 방문해 열린 경기를 펼쳤다.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29주년 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 우수선수 초청 룬볼대회'는 안산시(OPN 3복식 경기)와 정읍시(B)가 우승을 차지했다. 또 지난 27일 신태인체육관에서 정읍시 T-FORCE 팀의 시범공연을 시작으로 열린 '제129주년 동학농민혁

명기념 어울림 태권도 대회'에서는 정읍시 경희대라이온태권도 팀이 종합우승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제129주년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 전국보차아대회'와 '제15회 정읍 단풍 미인기 전국 좌식 배구대회'에서는 각각 전남 보차아연맹팀과 수원 리더스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동학농민혁명 기념 장애인 체육대회를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에 맞춰 개최하여 더 뜻깊다"며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이념을 되새겨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희망찬 정읍시를 만들고, 장애인 건강증진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

고창군, 6월부터 시행...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 유지

고창군이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위기경보 하향 조치는 지난 5월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하고, 국내 방역상황이 지속 안정세이며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하다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6월부터 △확진자 격리 5일 권고(기존 7일 의무) △병원급 이

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타 시설은 권고로 전환) △감염취약시설 중증자 선제검사(주 1회) 권고(단, 유증상·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검사) △입국 후 3일 차 PCR검사 종료 등이 다.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은 유지된다. 무상공급하는 치료제와 무료접종 시행 중인 예방접종, 입원환자의 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등 치료·생활 지원은 계속 유지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단 생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 5일 격리를 준수한 경우에만 한해 지원하며, 유급휴가비 또한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 해당된다. 고창군 유행수 보건의료장은 "방역조치 완화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주의가 필요하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면역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행복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내장산IC 입구 회전교차로에 '명품 단풍나무 새단장'

정읍시 내장산IC 입구 회전교차로에 정읍을 상징하는 명품 단풍나무가 식재돼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화사한 기운을 전하고 있다. 30일 정읍시에 따르면 내장산IC는 전국 최고의 단풍 명소로 꼽히는 내장산 국립공원을 비롯해 문화관광, 음식, 내장산단풍생태공원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이다. 기존 내장산IC 입구 회전교차로에도 나무가 식재돼 있었으나 최근 고사해 교통섬 전체가 아스팔트로 포장돼 삭막한 느낌을 줬었다.



시는 시목인 단풍나무를 이 자리에 식재하고 주변에 전통담장과 화어를 적절히 배치해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시의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는 전통적인 느낌을 연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와 함께 교통섬에는 관목과 초화류로 정원형 화단을 조성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또 야간에는 은은한 경관조명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도 힘썼다. 시 관계자는 "내장산IC는 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하는 정읍시의 첫 관문인 만큼 특별한 공간으로 가꿔 나가고 있다"며 "이번 회전교차로 정비로 정읍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정읍이 단풍의 고장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농기센터, 농작업 재해 예방 시범사업 실시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는 농작업 단계별 재해예방 및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과 '농업인 재해 안전마를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은 농업인의 재해예방 교육과 단계별 농작업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해 농업인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농작업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자생차연구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올해 사업은 자생차 재배에서 가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농작업 유해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게 된다. 특히 차 만들기 체험활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상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연령대별 차술(뒤집술) 규격화에 대해 집중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 다. 소성면 애당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 재해 안전마를 육성 시범사업'은 농약 중독 위험성 감소를 위해 농약 안전 보관함과 방제복을 지원한다. 또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해 농산물 수확차 등 안전보조구를 보급하고 마을 환경개선, 농작업 안전 관리의 식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